

- ◆... 간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각종 물질들...
- ◆...을 생산하고, 저장하며, 장에서 흡수된 각종 영양소를 몸에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
- ◆...도록 가공하고 쓸데없는 노폐물 및 독소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체외로 배설시키는역...
- ◆...할을하는 소위「화학공장」이다. 이렇게 우리 건강에 중요한 간장은 그 능력에 상당...
- ◆...한 여유가 있어 3분의2 정도가 그기능을 상실하여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있...
- ◆...으며 간세포의 재생능력도 왕성하여 일단 손상을 받더라도 곧 원상태로 회복될 수...
- ◆...있다. 따라서 간에 병변이 있더라도 일정한 선을 넘기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수...
- ◆...도 있으며 실제로 상당히 진행된 간경변증에서도 정상기능을 가지는 경우를 흔히볼...
- ◆...수 있다.

간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눈의 흰자위 및 피부에서 보이는 황달을 들수있다. 이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과잉축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빌리루빈은 수명이 다된 적혈구에서 생기는 물질이 간에서 처리되어 담즙으로 배설되는 찌꺼기 물질인데 간염이나 간경변증등 간손상이 생기면 기능이 저하되어 황달이 생긴다. 이때 소변으로 빌리루빈이 빠져나가 색깔이 진해지며 피하에 담즙산이 축적되면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전신피로감 및 심한 무력감등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피곤이 계속될때에는 간의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한다.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을 심하게 느끼기도 한다. 오른쪽 가슴 밑의 간부위에 간이 만져지기도 하며 배

근한 통증도 흔히 볼수있는데 간염의 경우에는 나오면서 크기가 원상태로 회복되지만 간경변증의 경우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하며 때로는 위축되어 정상간보다 작아지기도한다. 간경변증과 같은 만성 간질환때에는 목이나 어깨에 거미줄 모양의 붉은 반점이 생기고 손바닥의 혈관이 늘어나 붉게 보이기도 한다. 출혈성경향으로 코나 잇몸에서 쉽게피가 나고 피부에 멍이 잘 들게된다. 남자에서 성욕이 감퇴되고 음모가 빠지며 고환이 위축되고 젖이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여자는 월경이 불규칙하게된다. 복수가 생겨 배가 붓고 심한 경우 배꼽이 튀어나오게된다. 흔히 다리의 부종도 같이 오게된다. 식도의 혈관이 늘어나 식도정맥류를 만들고이것이파열될경우 대출혈을 일으킬수있다. 비장이 늘어나 좌측 갈비뼈 밑으로 만져지기도한다. 중증의 간질환의 경우 의식의 장애가 나타나 성격의 이상이나 지능의 이상이 오고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간장병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볼수있는것은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을 들수있다. 급성간염의 원인으로는 약물또는 독물

에의할수도 있으나 가장 많은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이다. 간염바이러스는 A형, B형및 비 A비B형이 있지만 어느것에걸리든지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하다. 즉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지며 구역이나 구토증이 생긴다. 담배나 커피맛이 변하기도 한다. 소변색이 짙어지며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황달이 없이 앓는 경우도 많으며 감기의 증상과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A형은 우리나라의 경우 20세 이상의 성인은 모두 면역된 상태로대개 어린아이에 많으며 증상도 경하며 합병증없이 잘 낫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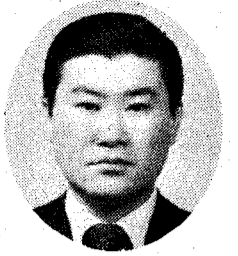
이 보통이나 B형은 급성간염 뿐만 아니라 만성 간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남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있는보유자가 많으며 전과경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혈액뿐만아니라 침이나 정액, 월경혈, 젖 등 체액으로도 바이러스가 배설이 되기에 특히 주의를요한다. 혈액수혈의 경우 현재 사전검사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병원의 주사침, 수술기구나 치과의 기구, 한방의 침이나문신에 사용하는 침, 면도칼, 손톱깎기등을 1회용을 쓰지않거나 잘소독하지 않으면 간염을 전파할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 보유자와 성교나 키스와같은 성적접촉으로도 전염이 가능하며 술잔들리기, 어린이에게 음식을 씹어 먹이기, 손에 침을 바르며 돈을 세는 습관도 바이러스를 먹을수있는 경로가 된다. B형간염의 감염경로가 장 중요시 되는것은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염되는 소위수직감염이다. 산모가 보유자이거나 임신말기에 B형 간염에 걸릴 경우 그 신생아에게 간염을 옮길 가능성이 극히 높으며 또한 신생아는 면역기능이 불완전하므

肝臟질환의 개요

로 바이러스를 평생 보유할위험이크다. 급성간염의 치료로는 우선 간을 쉬게하고 간으로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충분한영양을 공급할수 있도록 안정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급성기에는 대개구역이 심하여 음식을 먹을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맥 주사가 필요하나 일단 입맛이 돌아오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

정도면 치료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간염이라고 한다. 만성간염은 간조직검사로 만성 지속성 간염과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간염이 지속되다가 저절로 낫는데 비하여 후자는 진행성으로 간염이 악화하고 결국 간경변증으로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검사로 유형을 나누는 것이 치료 방침이나 예후를 결정하는데필

수적이다. 만성간염은 30대와40대에 많고 가장 많은 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이다. 그외원인미상의 자가면역에 의한 것 과 약물에 의한 것도 있다. 증상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며 다양하나 피로감 외에 소화불량이나 출혈성 경향으로 코피나 잇몸에 피가 자주나고, 여드름이 나기도 하며 얼굴색이



金 丁 龍
〈서울醫大내과教授〉

있는 사람이 술을 다량 섭취할 경우 상승작용 일으켜심한 간손상을 줄 수 있다. 이의 여러가지 약제를 남용하는 것은 간에 부지불식간에 누적된 손상을 초래하여 간경변을 유발할 수 있다. 간은 포용력이 크기 때문에 간경변이라든가 자각증상이나 간기능의 이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으나 염증이 광범위하여 간세포 손상이 심하면 간부전의 증상이 나타난다. 쇠약감이나 황달, 식욕부진이 나타나며 출혈성경향으로 코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며 목주위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손바닥이 붉게 변한다. 남자의 유방이 커지거나 고환이 위축되는 수도 있다. 간경변증의 합병증으로 복수가 차고 다리가 부으며 소변량이 감소하는 증상이 생기고 피를 토하거나 혈변을 보기도 한다. 신경이상, 정신이상및 간성혼수의 증상이 오기도 한다. 일단 간경변증 진단을 받으면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간의 반흔은 없앨 수가 없으나 약 3분의1의 환자에서는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수 있다는 점으로 보면 임상적으로는 완치도 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즉 적절한 치료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 간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적어도 더악화하는것을 막거나 지연시킬수가 있다. 간경변증의 약 4분의1에서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간경변증 환자가 간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거나, 체중이 감소할 때, 또는 출혈성의 복수가 생기면 간암을 의심해야 한다. 간암도 초기라면 수술로 완치되며, 최근에 함암제나 간장이식같은 새로운 치료법의 대두로 진행된 상태의 간암에서도 그 치료성적이 좋아지고 있다.

뚜렷한 이유없이 피로감을 느낄 때 肝疾患의심 豫防접종 통한 B형 肝炎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

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단백식이라고 어느 특정음식에만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며 여러영양식품을 고루 섞어 입맛에맞도록 먹어야한다. 소화만 된다면 기름기를 제한할 필요는없으며 신선한 야채나 과일도좋다. 입맛이 없을때에는 식사를 조금씩 나누어 하거나 먹기좋은 간식을 하는것도 좋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없이 다른약제, 특히 한약또는 부신피질호르몬등을 함부로 복용하면 병의 경과를 악화시킬수있다. 술도 최소 1년이상 마시지않는것이 바람직하다. 간염은 특히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은위생환경을 청결히하는 것이다. 또한 감염경로가 될수있는 생활습관을 개선해야한다. 최근에는 B형 간염백신이 개발되어 간염예방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백신이 가장필요한 대상은 신생아들이다. 일찍 백신을 맞아 항체를 길러놓아야 자라는 동안 B형간염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은 이미 바이러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원·항체 검사후에 필요한 사람만 접종하면 된다. 급성간염은 대개 3~4 개월

걸어지고 목주위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한다. 만성 지속성 간염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으나 활동성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 급성간염 때와 같은 일반요법외에최근 체내의 바이러스를 직접제거하는 인터페론같은 항바이러스제제와 환자의 면역상태를 증진시켜 간접적으로 제거능력을 조장하는 면역촉진제가 실용화되어 이용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염증으로 넓은 범위의 간세포가 파괴되고 그 자리에 딱딱한 섬유질이 자리잡고 살아남은 간세포들은덩어리를 이루며 자라 정상적인 간의 구조가 바뀌고 굳어지는 상태를 간경변증이라 한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우리나라서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B형 간염이며 최근 술에 의한 알콜성 간경변증도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알콜성 간경변증은 순수 알콜로 80gram(맥주로 2천cc, 막걸리 한되, 소주 2홉, 위스키 1홉에 해당) 정도의 많은 양의 술을거의 매일 10년정도 마신 경우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알콜성 간경변증은 꾸준한 안주나 간장약등 약물로 예방할 수 없으며 특히 B형 간염을 앓고

우리손으로 개발!

우리 技術, 우리 原料로 만든 B型 肝炎 백신

헤파박스[®]-B